# 3월 수출도 감소, 1년 넘게 적자행...美SVB 파산, 문제 없나

## 3월, 中·반도체 감소…누적 6.5조 적자
## "연쇄적 부도 시 위험…모니터링 필요"

이달 수출 감소·수입 증가에 무역수지가 더 악화됐다. 미국에서 터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1년 넘게 계속된 무역적자가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경제전문가들은 미 당국이 SVB 파산 사태에 발 빠르게 대처해 우리 수출에 미칠 직접적인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나마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미 수출 실적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58억 달러(약 20조6664억원), 수입은 208억 달러(약 27조2064억 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6.2% 감소한 반면 수입은 2.7% 증가했다.

올해 연간 수출누계는 1123억 달러(약 146조8884억원), 수입은 1351억 달러(약 176조7108억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2.6% 감소, 수입은 0.6%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연간 227억7500만 달러(약 6조53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는 중국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악화됐다.

이달 열흘 간 수출은 자동차(133.7%)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주력 상품인 반도체(41.2%)와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등에선 대폭 감소했다.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미국(5.6%)과 인도(5.5%)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중국(35.3%), 유럽연합(6.2%), 베트남(16.4%), 일본(7.3%) 순으로 감소했다.

**◆글로벌 타격 큰 韓수출…美SVC 파산 영향은 미미**

미국 16위 은행인 SVB의 파산이 자칫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수출 실적이 글로벌 변수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1년 넘게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SVB파산까지 벌어지자, 민관 합동으로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산업부는 SVB사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연방 금융 당국이 SVB 파산이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 보증 한도를 넘는 예금 지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당사국인 미국이 나서서 처리하고 있는 데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국에 진출한 은행이나 스타트업 정도 타격을 입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우리 무역의 심각한 상황까지 번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그니처은행 폐쇄에…연쇄 부도엔 '무역 빨간불'**

다만 문제는 SVB 파산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쇄적으로 번질 때다.

실제로 SVB가 파산한 가운데 12일(현지시간) 미 뉴욕주 금융당국이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커졌다.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은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은행 중 하나다.

물론 뉴욕주 금융당국은 시그니처은행에도 고객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것과 유사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파산이 연쇄적으로 확대된다면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사태 자체 만으로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유사한 금융기관에 연속적으로 번지면 세계 경제 흐름이 악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다른 금융기관 거래까지 중단되면 미국 내 자금 공급이 경색돼, 기업들이 정리 해고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중국과 달리 수출 실적이 좋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미 수출 실적이 감소해 우리 무역 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모니터링 필요"**

SVB 파산이 자칫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 교수는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미 금융 시장 전반이 침체될 시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며 "이 때 경제 전반이 침체되면서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수출이 환율 및 대외 의존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무역적자는 환율과 공급망 부재에서 야기된다"며 "현재 불황은 복합적인 침체에서 불거진 만큼, 미 은행 파산으로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산업부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를 대비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 업종별 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과 민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 착용감·흡수력·통기성 강화…'하기스 매직컴포트' 출시

## 특허출원 듀얼액션코어 등 기술 적용

종합 유아아동용품 기업 유한킴벌리는 '하기스 매직컴포트'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하기스 매직컴포트는 기저귀 주요 속성 중 편안함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제품이다. 착용감과 흡수력, 통기성, 샘방지 측면에서 신기술을 적용해 편안함의 수준을 더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에는 흡수력과 통기성을 모두 높인 다기능 첨단 소재인 '듀얼 액션코어'가 적용됐다. 해당 소재는 국제 특허 및 디자인 특허 출원까지 완료한 유한킴벌리만의 기술이다. 흡수 액션시트와 통기액션터널 구조가 동시에 적용돼 흡수속도가 약 70%(기존 제품 밴드형 3단계 기준, 자체시험법 시행) 빠르고 통기성도 좋다.

밴드형 제품에는 앞뒤 샘방지 안심포켓이란 신기술도 적용됐다. 안심포켓은 묽은 변이 등 뒤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해 오고 있는 고유 기술이다. 신제품은 아이들이 눕거나 뒤집어도 용변이 샐 걱정 없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앞뒤 모두에 안심포켓을 적용했다. 아기피부를 고려해 피부 저자극 안전성 점검을 완료했고 시어버터 로션 처리까지 했다.

밴드 소재도 강화됐다. 매직 핏 다리밴드(밴드형)에는 4줄의 고탄력 밴드를 적용해 아기 다리를 편안하게 감싸주고 샘도 예방해준다. 매직 롱 허리밴드(팬티형)는 허리에서 약 54% 만큼 높아지도록 설계해 배가 쪼이지 않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신제품은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FSC 인증펄프만을 사용했고 포장재 중량대비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낮추는 등 지구환경까지 고려했다.

이슬비기자

# 아시아나, '광주·대구·청주~제주' 운항 확대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지방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는 국내선 운항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특정 기간(3/26~10/28)에 광주·대구·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을 매일 왕복 7편에서 11편으로 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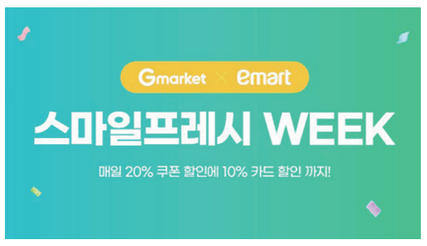
이 증편으로 광주~제주 노선 항공편은 매일 3편에서 5편으로 늘어난다. 대구~제주 노선과 청주~제주 노선도 각각 2편에서 3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하루 공급 좌석은 총 1404석이 증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국내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운항 노선을 더 다양화할 방침이다. 회

사 관계자는 "제주를 오가는 고객들의 편리한 여행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 G마켓, 고물가에 '알뜰 장보기' 통했다




G마켓은 스마일프레시 도입 후(22년8월~23년2월) 식품 카테고리 월평균 거래액과 주문량이 전년보다 각각 16%, 12%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채소(60%), 소고기(50%), 해산물 어패류(46%), 닭고기 계란(16%), 생선(12%) 등 신선식품 거래 규모가 크게 늘며 식품 카테고리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스마일프레시는 G마켓이 신세계그룹에 편입된 후 진행된 핵심 통합(PMI) 작업 중 하나로, 공산품 위주였던 G마켓에서 이마트의 검증된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빠른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일프레시 인기에 힘입어 G마켓은 오는 19일까지 SSG닷컴 창립 4주년과 연계한 '스마일프레시 위크' 프로모션을 연다. 쿠폰 등 혜택과 함께 신선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혜택으로 최대 3천원 할인되는 '20% 쿠폰', 스마일클럽 회원 대상 '15% 쿠폰'이 하루에 한 번씩 발급된다.

스마일프레시 첫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만원 할인되는 '20% 쿠폰'도 있다.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7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10% 즉시 할인된다.

뉴시스

# 알뜰주유소도 고작 33원 인하…정유 '가격공개' 실효성 있나

## 지난 10년간 알뜰·일반 가격 차 33원
## 일선 주유소 70%도 가격 공개 반대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정유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가격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 가격 공개'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평균 가격 차이는 리터(ℓ)당 33원에 불과했다. 휘발유는 ℓ당 정유사 상표 1603원, 알뜰 1570원으로 격차가 33원에 그쳤다. 경유도 정유사와 알뜰 각각 ℓ당 1433원과 14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휘발유와 같았다.

**◆가격 공개 정책, 효과 미미한데 부작용은↑**

가격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은 12년 전부터 잘 알려졌다. 2011년에도 지역·주유소별로 정유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정안에 관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성격은 불확실하고 추상적이지만 정유사들이 입는 불이익은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며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 균형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정유사 간 판매가격 차이가 ℓ당 20~30원에 불과해 공급가 인하 효과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 공개가 국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들에 타격만 준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환율이나 유가가 오르거나 유류세 인하를 하더라도 최소 100원 단위로 움직인다"며 "가격 공개로 10원, 20원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정책적 실효성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유소도 반대하는 가격 공개…"나쁜 주유소 낙인"**

일선 주유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운영 부담이 증가한 주유소들의 폐업률은 4%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협상력은 올라가지 않는데 주위 주유소들보다 비싼 가격에 휘발유나 경유를 팔면 나쁜 주유소로 낙인만 찍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지난달과 이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가 70%였다"며 "정유사 공급가는 판매량, 규모 등에 따라 주유소마다 다른데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영세한 주유소들의 협상력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력이 생기지 않고 공급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없는데 높은 가격에 정유를 사와 비싸게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주변 주유소보다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환 기자

# "패션 상품 인기↑" SK스토아, 할인 행사

SK스토아는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패션 상품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SK스토아 패션 관련 상품의 취급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동기 대비 남성의류 상품은 약 83%, 여성의류는 약 51%, 레포츠패션은 약 53% 신장했다.

특히 지난 8일 오전 10시 41분에 진행된 '버커루 여성 시그니처 재킷' 방송 110%, 12일 오후 2시 41분에 진행된 '스케쳐드 아치핏 워킹화' 방송 역시 110%의 취급고 달성률을 달성하며 목표 대비 초과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SK스토아는 패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패션 23 봄여름(SS) 시즌 특집전'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헬렌카렌, 인디코드 등 SK스토아 패션 자사브랜드(PB) 상품을 비롯해 여성의류, 레포츠 패션 등 상품을 대거 선보인다. 또한 행사 상품 구매 시 최대 30% 적립금을 증정한다.

정승호 기자